영어어문교육, *14*권 **4**호 **2008**년 겨울

한국 대학생의 영어학습동기, 의사소통의지와 영어전용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김 영 숙*
(총신대학교)
이 지 연**
(총신대학교)

Kim, Youngsook & Yi, Jyi-yeon. (2008). Korean EFL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the use of English-only zon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223-245.**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willingness to communicate contribute to the use of English-only zone by college students in a Korean university. One-hundred and eighty five Korean EF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study.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regarding their perceived competenc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side (WTC Inside) and outside classroom (WTC Outside), and their current use of English Café. Through the analysis of data the followings were revealed: 1) learners' integrative motivation was more related to both WTC Inside and Outside rather than instrumental motivation;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users vs. non-users of English-only zone) with regard to learning motivation; 3)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erms of WTC. Learners with high WTC Inside used English-only zone more often and voluntarily than learners with moderate WTC Outside. Ways to enhance WTC of English learners and to promote more active use of English-only zone in a Korean university a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nglish learning motivation/willingness to communicate/English-only zone, 영어학습동기/의사소통의지/영어전용공간]

I. 서론

국제화 시대에서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은 특정 전공이나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능력으로 자리잡게

* 제1저자 **제2저자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실용영어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 선택에 필요한 토익이나 토플 등의 표준영어시험 점수에 준하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향상과 효과적인 영어습득을 위해 학기 또는 방학 중 영어집중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박영예, 1999; 조동완, 1998), 대학 내에 영어사용 전용공간을 마련하는(박매란, 2005; 안병길, 2007)등 영어입력과 영어원어민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늘리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어전용공간들이 얼마나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어떤 특성, 즉 인지적, 또는 정의적 요인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어학습에 미치는 학습자 변인 중 정의적 요인(affective factor)은 제 2 언어 습득과 제 2 언어 사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정의적 요인 중 태도(attitudes), 동기(motivation), 언어불안(language anxiety) 등이 제 2 언어 습득과 성취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 간에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 등은 연구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되었다(Brown, 2007; Scovel, 2001). 특히 통합적 동기는 언어습득의 능숙도와 장기기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제 2 언어 사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Gardner & Lambert, 1972). 언어불안 또한 제 2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언어수행이나 구두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Bailey, 1983; Horwitz, Horwitz & Cope, 1986; Woodrow, 2006).

최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가운데 새로운 개념으로 관심을 받는 요인 중 하나가 학습자가 제 2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 WTC)이다. 의사소통의지(WTC)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MacIntyre, Baker, Clément & Conrod, 2001, p. 369)라고 정의할 수 있다. 원래 WTC 의 개념은 McCroskey 와 그의 동료들의 모국어 의사소통 (L1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McCroskey, 1992; McCroskey & Richmond, 1987)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현재는 제 2 언어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다른 정의적 요인들과 함께 그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MacDonald, Clément & MacIntyre, 2003; MacIntyre, Baker, Clément & Donovan, 2002; MacIntyre, Clément, Dörnyei & Noels, 1998; Yashima, 2002; Yashima, Zenuk-Nishide & Shimizu, 2004). MacIntyre (1994)는 높은 자각 의사소통능력(perceived communicative competence)과 낮은 의사소통 불안감(communicative anxiety)이 결합하여 WTC 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WTC 가 의사소통빈도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가운데 WTC 개념을 다룬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WTC 와 구두의사소통간의 관계(이해련, 2005),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불안감과 WTC 의 관계(김신혜, 이기재, & Edwards, 2006), 그리고 MacIntyre 와 Charos (1996)의 제 2 언어 의사소통모델을 바탕으로 WTC, 언어불안, 자각 의사소통능력 등과 의사소통빈도간의 연관성(김현진, 2005) 등이 그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긴장감과 WTC 관계(김성중, 2007), 그리고 내용중심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규명하는 요인의 일부로 WTC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Kang, 2008). 이러한 WTC 를 포함한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은 정의적 요인들을 능숙도 및 성취도와 곧바로 관련지어 연구하거나 요인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제 2 언어 사용과 직접적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전용공간에 스스로 참여하여 의사소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데에 영어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영어전용공간이란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제한된 EFL 상황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사용을 유도하도록 만든 영어수업 이외의 영어사용구역을 말한다. 가령, 초·중·고·대학교와 시 등에서 설치한 English Café, English Zone, 영어마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내에 설치된 상설 공간으로 원어민 교수와의 대화뿐 아니라 영어관련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공간을 의미한다. 즉, 이는 교실 환경과는 차별되며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에서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일상 생활과 유사한 준자연환경(pseudo-natural setting)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WTC)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가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한국 대학생들의 의사소통의지(WTC)가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제 2 언어학습 동기

제 2 언어학습과 동기에 관한 중요한 연구 중 하나는 Gardner 와 Lambert 의 연구(1972)이다. Gardner 와 Lambert 는 동기의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로 나누었다.

여기서 도구적 동기는 기능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동기를 말하는데 가령,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내용의 자료를 읽기 위해서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반면에 통합적 동기는 자기 자신을 제 2 언어 문화권 안으로 통합시키고 그 집단 속에서 사회적인 상호 작용에 포함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동기를 가리킨다.

Gardner 와 Lambert(1972)는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보다 외국어 능숙도 시험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후 통합적 동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건으로 여겨져 왔으며 제 2 언어 사용의 빈도나 언어학습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s, 1997; Gardner, 1985, 1988; Lee, 2005). 통합적 동기의 긍정적 효과에 반하여 도구적 동기 또한 외국어 학습의 능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Gardner & MacIntyre, 1991; Lukmani, 1972). Lukmani(1972)는 인도에서 Marathi 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시 서구문화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인도의 영어학습자들에게 도구적 동기가 통합적 동기보다 영어학습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동기에 대한 개념은 과거에는 다분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개인적 변인으로 간주되었지만, 지향성(orientations)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자들(Dörnyei, 2001; Gardner & MacIntyre, 1991)의 주장과 함께 사회구성주의 이론이 대두되면서 동기의 사회적인 측면과 역동적인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구적·통합적인 두 가지 유형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동기 또는 지향성이 혼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기란 타인과의, 그리고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맥락의존적이고 사회상황적인 구인으로 파악된다(Lamb, 2007). 즉, 학습자의 동기는 학습자 자신의 내적 변인뿐만 아니라 교육적 맥락, 교수법,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적인 요인으로 점차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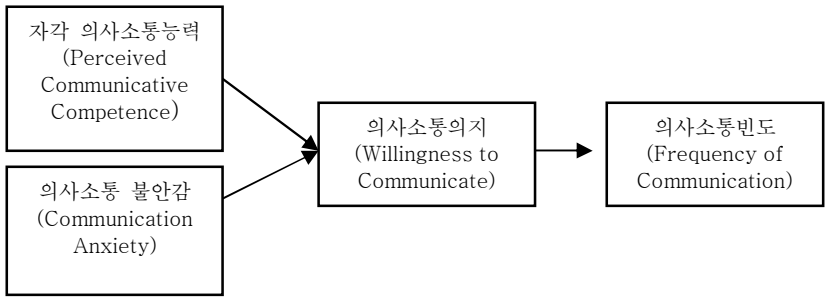
2. 의사소통의지(WTC)와 L2 의사소통빈도

1990 년대 이후 제 2 언어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들은 언어학습이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이나 교수환경에 따라 동기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MacIntyre 외 3 인(1998)은 많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충분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의 개별적 차이를 WTC 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동기의 여부와 언어 성취도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한 데 반해, 이들은 동기의 여부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동기와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WTC 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L1 의사소통 연구자들인 McCroskey 와 Richmond (1990)는 WTC 가 의사소통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불안감, 내향성, 의사소통을 꺼리는 것, 그리고 수줍음 등의 성격 특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MacIntyre(1994)는 학습자의 자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불안감이 WTC 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의사소통 빈도로 연결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WTC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그림 1
MacIntyre(1994)의 의사소통의지(WTC) 모형



이러한 MacIntyre(1994)의 의사소통의지 모형은 Gardner(1985)의 동기에 관한 모형과 합쳐져서 제 2 언어 의사소통에서 WTC 를 구성하는 여러 변인들에 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WTC 가 L2 의사소통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 반면, 동기는 WTC 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MacIntyre & Charos, 1996; MacIntyre & Clément, 1996). 또한 MacIntyre 외 3 인(2001)은 캐나다 몰입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의 교실 내에서의 WTC, 교실 밖에서의 WTC, 동기, 그리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교실 밖에서 학생들은 더 강한 WTC 를 보여주었으며 또 덜 친근한 관계에서 실제적 언어사용은 더 잘 일어난다고 하였다. 반면, EFL 상황인 우리나라의 대학생 학습자들의 경우 교실 내에서의 WTC 가 교실 밖 WTC 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실 내에서의 WTC 가 학습자들의 구두의사소통능력과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해련, 2005).

WTC 와 제 2 언어 의사소통빈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EFL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진, 2005; Hashimoto, 2002; Yashima, 2002; Yashima 외 2 인, 2004). Yashima 외 2 인(2004)은 일본과 같은 EFL 영어학습 상황에서는 WTC 가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고등학생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WTC 가

의사소통빈도를 측정하는 모든 항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즉, WTC 가 높은 학습자들일수록 교실에서 먼저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교실 밖에서 원어민 교사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학교 이외의 상황에서도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Yashima 외 2 인(2004)은 또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WTC 가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의 의사소통빈도나 개인간의 접촉, 그리고 문화적 적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WTC 가 높은 학습자의 경우 미국 내 호스트패밀리와 더 자주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여행 기간 동안 대인관계나 문화적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두 연구결과 모두 WTC 를 통해 제 2 언어 의사소통의 빈도와 양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진(2005)은 MacIntyre 와 Charos(1996)의 제 2 언어 의사소통 모델을 한국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MacIntyre 와 Charos 의 모델은 Gardner(1985)의 동기모델과 MacIntyre(1994)의 WTC 모형(그림 1 참조)을 통합한 것으로 의사소통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의적 요인들(즉, WTC, 동기, 자각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 불안감 등)과 요인들간의 관계를 제시해주고 있다. 연구결과, WTC 는 의사소통빈도에 영향을 주며, 자각 의사소통능력과 의사소통 불안감이 WTC 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의사소통 불안감은 자각 의사소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김현진(2005)은 한국 학습자들이 교실 수업에서 의사소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L2 를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학습자의 WTC 와 L2 학습동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WTC 와 L2 의사소통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WTC 는 학습동기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동기는 WTC 에, 그리고 WTC 는 의사소통빈도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영어전용공간의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영어학습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교실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필요가 절실해졌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영어에 노출되거나 원어민들과 상호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기에 학생들의 다수가 영어사용국가로 단기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사회적 추세가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집중적인 영어노출과 영어사용 훈련을 위해 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단위 영어마을이 조성되거나 학교 단위의 영어체험시설이 마련되는 등 EFL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병천, 2007; 이재희, 김진석, 황종배, 문승기, 2003).

한편 대학에서도 실제적인 의사소통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영어 사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시도되어왔고(박영예, 1999; 조동완, 1998) 최근에는 대학 내에 학생들의 영어 구사력 함양을 위한 일환으로 상시적인 영어전용공간이 많이 설립되어 이의 활용도나 이 곳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박매란, 2005; 안병길, 2007; 이상은, 2006; 임자연, 심영미, 2008). 임자연과 심영미(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 내에 운영되고 있는 English Café 를 "교실과 같은 정제된 분위기가 아닌,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원어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비교적 유사한 준자연환경"(p. 414)으로 정의하고 교실환경과 준자연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준자연환경의 학습자들이 교실환경의 학습자들과 비교해볼 때 원어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English Café 에서 학습자들이 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대화를 더 유도해나갔으며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English Café 와 같은 준자연환경이 학습자들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일상생활에서 영어가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되는 ESL 환경은 아니지만, EFL 상황의 영어학습자들에게는 교실환경과는 차별된 효율적인 언어습득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학 내에 설치된 English Café 와 같은 영어전용공간에서 영어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가 이러한 영어전용공간의 활용여부나 활용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대학 내의 총 8 개 학과 2 학년 학생 185 명이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로 참여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교양영어 강좌로서 『실용영어』I-IV 까지의 4 개 강좌가 각각 3 개의 수준별로 개설되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은 『실용영어』I 부터 차례대로 한 강좌씩 4 학기에 걸쳐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1 학년 때 『실용영어』 I, II 강좌들을 이미 이수한 상태였고 연구 당시에는 『실용영어』 III 강좌들을 수강하고 있는 중이었다.

응답자들은 모든 학과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66 명(36%)이었고 여학생은 119 명(64%)이었다. 또한 해외 체류 경험은 전혀 없거나(78.9%) 혹은 있더라도 3 개월 이하인 것(11.9%)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90.8%)이 해외 체류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질문 (부록 내의 설문지 문항 5 참고)에서, 전체 응답자의 86.5%가 자신의 영어 능력 수준을 중하 또는 하위 수준으로 답하였다. 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전반적으로 영어 능력 측면에서 볼 때 중하 또는 그 이하의 비교적 균질한 성격의 집단이라 할 수 있겠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되었는데, 설문지(부록 참고)는 주요 변인인 영어학습동기, WTC, 그리고 영어전용공간의 이용실태 등을 알아보는 총 15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 번부터 5 번까지의 5 개 질문은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들이었고, 6 번부터 10 번까지의 5 개의 질문은 영어 학습 방법, 영어학습동기 및 의사소통의지(WTC)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영어학습동기 및 의사소통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3 개의 질문은 각각 12 개, 9 개, 9 개의 세부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영어학습동기에 관한 12 개의 세부 질문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통합적 동기(8-2,3,5,8,9,10)와 도구적 동기(8-1,4,6,7,11,12)에 관한 질문들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작성되었고, WTC 에 관한 세부 질문들은 MacIntyre 외 3 인(2001)의 WTC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교실 내 의사소통의지(WTC Inside)와 교실 밖 의사소통의지(WTC Outside)로 나누어 구성하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 11 번부터 15 번까지의 5 개 질문들은 의사소통의지와 실제 의사소통 활동 간의 관련성 및 교내의 영어전용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설문지는 2008 년도 1 학기 기간 중『실용영어』 III 강좌들의 수업 시간에 응답자들에게 배포되어 그 자리에서 응답한 후 바로 수집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 후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설문지 내의 질문들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후, 모든 질문 항목에 대하여 기술 통계를 수행하였다. 본 설문지 내의 주요 변인인 영어학습동기, WTC Inside, WTC Outside 각각에 대한 세부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α) 값을 산출하여 보았다. 그 결과 표 1 과 같이 α=.881~.948 로 나타났으며,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변인들에 속한 세부 문항들 중 설문지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제거되어야 할 문항들은 없었다. 따라서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 Alpha(α) 계수

변인	k	Alpha(α)
Motive	12	.881
WTC Inside	9	.915
WTC Outside	9	.948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설문 내의 11 번 질문에서 영어전용공간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t-test 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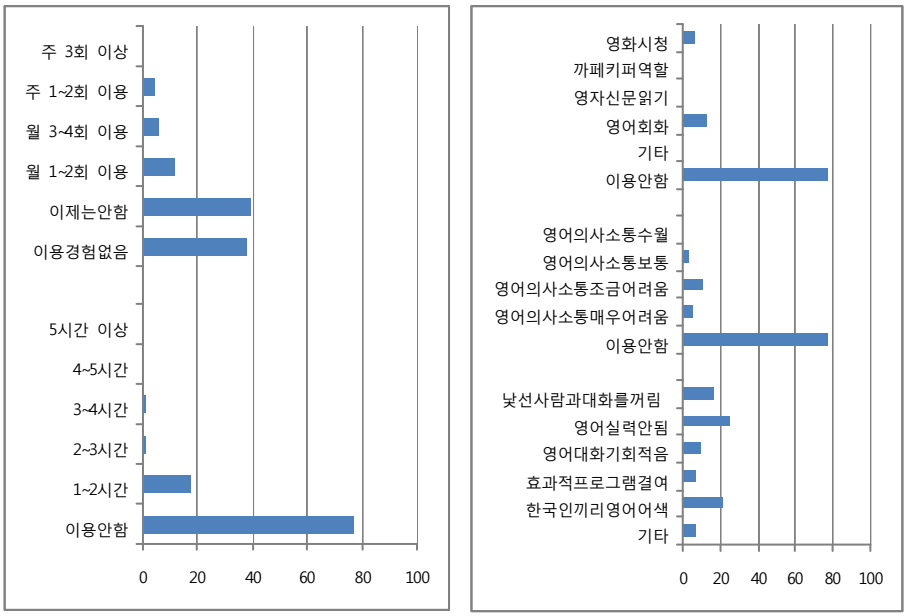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어전용공간 이용에 대한 분석 결과

교내 영어전용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2 에서 보듯이 응답자 185 명 중 대다수인 143 명 (77.3%)이 영어전용공간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과거에는 이용했다가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었고, 단지 43 명 (22.7%)의 학생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모두 2 학년 학생들로서 교내의 영어전용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응답자들 스스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이 공간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까닭으로 여겨진다. 실제 설문에서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응답자 중 48 명 (25.9%)이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곳의 이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들 중 86.5%가 자신의 영어능력을 중하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낮게 평가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용 실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할 경우 주로 한 번에 1-2 시간 정도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 (17.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자신과 같은 영어학습자들이나 원어민 교수와 영어로 대화하기(12.4%),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영화 시청 하기(8.6%), 보드 게임하기(6.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영어전용공간 이용 실태



2. 영어학습동기와 WTC 간의 상관관계

영어학습동기(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와 의사소통의지(WTC Inside 와 WTC Outside)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 에서 보듯이, 영어학습동기와 WTC Inside 간의 상관관계, 영어학습동기와 WTC Outside 간에는 약하기는 하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의 유형별로 WTC(WTC Inside 및 WTC Outside)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통합적 동기가 도구적 동기보다 WTC Inside 및 WTC Outside 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변인들 내의 세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영어학습동기 항목 중 통합적 동기인 "영어권의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이다"라는 세부 항목(Motive 5)과 WTC Inside 및 WTC Outside 간의 상관관계가 그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Pearson's r = 0.293 ~ 0.387). 한편, WTC Inside 와 WTC Outside 사이의 상관관계가 영어학습동기와 WTC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영어학습동기와 WTC 간의 상관관계

	도구적 동기	통합적 동기	WTC Inside	WTC Outside
도구적 동기	1			
통합적 동기	.631**	1		
WTC Inside	.272**	.397**	1	
WTC Outside	.259**	.364**	.719**	1

**p<.01

3. 영어학습동기와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와의 관계

영어학습동기와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에 영어학습동기 면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영어학습동기와 관련한 응답의 전체 경향을 보면, 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 평균 3.77 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영어 학습에 관한 동기가 비교적 부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의 응답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에 관한 질문 1, 2, 3, 4, 8, 9, 10, 11, 12 에 대해서 응답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의 당시 상황이나 아주 가까운 미래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동기가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영어 학습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영어학습동기 측면에서 두 집단의 평균 비교

	Motive	Non-users (N=143)	Users (N=42)
1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4.05	4.19
2	영어권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3.69	3.83
3	영어권 뿐 아니라 타문화권 사람들과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3.77	3.88
4	미래의 나의 진로와 연관하여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85	3.95
5	영어권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이다.	3.05	3.33
6	사업에 성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31	3.55
7	직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이다.	3.14	3.19
8	좀 더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4.02	4.14
9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94	4.07
10	자아실현 및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91	4.00
11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이다.	3.61	3.76
12	졸업 후 대학원이나 유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4.08	4.19
	집 단 평 균	3.70	3.84
	전 체 평 균	3.77	

위의 표 3 에서와 같이 영어학습동기 면에서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t-test 검증을 통해 그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 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집단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볼 때 영어학습동기에 관한 모든 항목들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영어학습동기 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

Motive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df	t	Sig.
1	-.142	.201	183	-.705	.483
2	-.141	.174	183	-.812	.419
3	-.112	.188	183	-.595	.554
4	-.106	.239	183	-.445	.558
5	-.284	.206	183	-1.381	.172
6	-.240	.213	183	-1.125	.264
7	-.051	.224	183	-.226	.822
8	-.122	.190	183	-.641	.524
9	-.134	.188	183	-.716	.476
10	-.091	.193	183	-.471	.639
11	-.154	.204	183	-.753	.454
12	-.107	.218	183	-.488	.627

기존의 영어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들 (Gardner, 1985, 1988; Gardner & MacIntyre, 1991)에 따르면 통합적 동기 또는 도구적 동기가 외국어 사용이나 외국어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영어학습동기 (통합적 및 도구적 동기 둘 다 포함)는 학습자들이 영어학습의 방법으로서 영어전용공간과 같은 곳을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그 곳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동기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의사소통의지(WTC)와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와의 관계

1) WTC Inside 면

WTC 와 영어전용공간 활용 여부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에 WTC 면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WTC Inside 면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교실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과업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WTC Inside 가 어느 정도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표 5 에서 보듯이 두 집단의 평균은 2.93 으로 나타나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따라서 응답자들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지만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을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는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 응답자들은 선생님에게 질문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WTC Inside 2, 5)처럼 필요성이 주어지는 경우 내지는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WTC Inside 1)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면 대화하기 (WTC Inside 3),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WTC Inside 8) 등과 같이 교실 환경에서 비교적 더 많이 경험해본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WTC Inside 측면에서 두 집단의 평균 비교

	WTC Inside	Non-users (N=143)	Users (N=42)
1	최근 당신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	2.66	3.10
2	숙제에 관해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3.18	3.55
3	외국인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가 당신에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오면 그와 대화하기	3.27	3.64
4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2.55	2.88
5	영어로 쓴 글이나 표현이 맞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3.05	3.50
6	연극이나 역할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기하기	2.28	2.74
7	영어로 모노폴리(블루마블) 등의 게임을 하기	2.65	2.93
8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2.84	3.05
9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2.23	2.50
	집 단 평 균	2.75	3.10
	전 체 평 균	2.93	

그런데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에 WTC Inside 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t-test 를 통해 분석하여 본 결과, 아래의 표 6 에서 보듯이 세부 항목 1,2,3,5,6 이라는 5 개의 항목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WTC Inside 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

WTC Inside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df	t	Sig.
1	-.431	.203	183	-2.121	.037
2	-.366	.183	183	-2.003	.049
3	-.377	.189	183	-1.996	.049
4	-.329	.215	183	-1.531	.131
5	-.451	.205	183	-2.196	.032
6	-.458	.215	183	-2.135	.036
7	-.2788	.245	183	-1.136	.260
8	-.208	.206	183	-1.010	.316
9	-.269	.197	183	-1.369	.17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WTC Inside 항목들을 살펴보면, 최근 다녀온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기(WTC Inside 1), 숙제에 관해 선생님에게 물어보기(WTC Inside 2), 외국인이 교실에 들어와서 그가 먼저 말 걸어오면 대화하기(WTC Inside 3), 자신의 영어 작문에 대해 선생님에게 물어보기(WTC Inside 5), 연극이나 역할극에 참여하기 (WTC Inside 6) 등의 상황에 대해서였다. 이와 반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 익히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WTC Inside 4), 영어로 모노폴리 등의 게임하기 (WTC Inside 7),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WTC Inside 8),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WTC Inside 9) 등이었다.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그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일반적인 영어 수업 시간을 통하여 경험해본 바 있는 비교적 익숙한 과업들이거나,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 또는 의무성이 높은 활동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처럼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의 필요성/의무성이 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활동들이거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높은 활동들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소통할 의지가 더 있는 학습자들은 실제로 의사소통 활동을 하기 위해 영어전용공간과 같은 곳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활동을 하는 반면에, 영어전용공간 비이용자 집단들은 이와 같은 활동들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의지가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WTC Outside 면

영어전용공간 이용과 WTC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이번에는 WTC Outside 면에서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7 에서 보듯이 교실 밖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이 교실 내 환경에서보다 더 낮은 2.69 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보다 더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응답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필요성이나 의무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교실 밖 상황에서보다는 필요성과 의무성이 주어지는 교실 내 환경에서 의사소통할 의지가 더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표 7
WTC Outside 측면에서 두 집단의 평균 비교

	WTC Outside	Non-users (N=143)	Users (N=42)
1	최근 당신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2.39	2.83
2	선생님을 찾아가서 숙제에 관해 물어보기	2.73	3.14
3	외국인이 당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당신에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오면 그와 대화하기	2.90	3.38
4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2.38	2.76
5	영어로 쓴 글이나 표현이 맞는지 원어민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2.78	3.17
6	연극이나 역할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기하기	2.10	2.43
7	영어로 모노폴리(블루마블) 등의 게임을 하기	2.50	2.64
8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2.67	3.05
9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2.01	2.50
	집 단 평 균	2.50	2.88
	전 체 평 균	2.69	

교실 밖 환경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의지가 있는 지에 있어서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t-test 를 해본 결과, 전체 9 개의 세부 항목들 중 3 개의 항목에 대해서 신뢰도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들을 살펴보면, WTC Inside 에 대한 분석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8
WTC Outside 면에서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test 분석 결과

WTC Outside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df	t	Sig.
1	-.442	.220	183	-2.010	.048
2	-.416	.224	183	-1.852	.068
3	-.486	.219	183	-2.220	.030
4	-.384	.215	183	-1.785	.078
5	-.383	.220	183	-1.744	.085
6	-.324	.221	183	-1.467	.147
7	-.146	.238	183	-.615	.541
8	-.376	.219	183	-1.716	.090
9	-.486	.217	183	-2.235	.028

위 표 8 에서 보듯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 이야기 하기(WTC Outside 1), 외국인이 다가와서 말 걸 때 그와 대화하기(WTC Outside 3),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 (WTC Outside 9) 등이다. 이들 항목들은 모두 교실 밖 환경에서 응답자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유형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다녀온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과 같이 익숙한 주제이거나, 외국인과 말하기 등의 익숙한 상황이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기 등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신의 영어 수준에 개의치 않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겠다. 즉, 그들의 경험상 익숙지 않은 활동이거나 그들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활동들에서는 두 집단 모두 의사소통할 의지가 별로 높지 않으며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도 없는 반면에, 그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의사소통할 의지가 있어서 영어전용공간과 같은 곳을 이용하여 실제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의지를 보이는 학습자들은 원어민들과 대화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과 비교적 유사한 영어전용공간을 실제로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 중 교실 영어 수업 이외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대학 내에 설치된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그 곳을 이용하지 않는 학습자들에 비해서 영어학습동기나 WTC 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은 곳을 이용하여 영어 말하기·듣기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들은 영어학습동기 면에서는 비교적 보통 이상 수준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 모두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C 는 영어학습동기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 WTC Inside 보다 WTC Outside 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학습동기와 WTC Inside, WTC Outside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영어학습동기와 WTC Inside 및 WTC Outside 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난 반면에 WTC Inside 와 WTC Outside 간에는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내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이와 같은 세 가지 항목 면에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을 때,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이 더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에 대한 t-test 검증 결과, 영어학습동기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WTC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영어전용공간을 자발적으로 이용하여 영어 말하기·듣기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의 영어 학습자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고, 그간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통해 접해보았거나 의사소통 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성이 강한 활동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WTC Inside 와 WTC Outside 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WTC Inside 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TC Outside 가 높게 나타난 캐나다 몰입 프로그램 연구 (MacIntyre 외 3 인, 2001)와는 상반된 결과인 반면, EFL 상황의 우리나라 연구에서 WTC Inside 가 더 높게 나타난 이해련 (200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실 밖 영어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고 대부분 교실 환경에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학습자들이 준자연환경과 같은 English Café 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영어전용공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학습동기만 있는 것보다 WTC 가 있는 것이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편견 및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 그들의 WTC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많은 학습자들이 이 곳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심리적 두려움 또는 의사소통 불안감을 완화시키거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활동들을 제공해줌으로써 이들에게 이와 같은 공간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성 및 WTC 를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의 English Café 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그와 같은 공간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해주는 곳이라는 인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전용공간을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의 정의적 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영어전용공간 이용자 집단(42 명)과 비이용자 집단(143 명) 간의 수적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이는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제한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어전용공간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영어전용공간의 위치나 프로그램의 문제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심리적 두려움과 같은 정의적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 불균형(남학생:여학생=66:119)을 보인 점도 연구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은 이러한 제한 점들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전용공간에서의 L2 사용과 의사소통 빈도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 가운데 영어학습동기와 WTC 두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WTC 관련 연구 (김현진, 2005; MacIntyre, 1994; McCroskey & Richmond, 1990)에서 보듯이 WTC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소통 불안감, 자각 의사소통능력 등의 정의적 요인들을 감안한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성중. (2007). 한국 대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긴장감 연구. *영어어문교육, 13*(4), 211-231.

김신혜, 이기재, Edwards, P.(2006). 초등 영어학습자의 의사소통의지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12*(1), 201-226.

김현진. (2005). 언어 불안감, 자각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의사 및 동기와 제 2 언어 의사소통 빈도의 관계: 한국 EFL 상황을 중심으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2*(1), 161-184.

박매란. (2005). 부경대학교 English Cafe 운영 사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회보*, 15-20.

박영예. (1999). 영어마을 운영사례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54*(1), 197-219.

안병길. (2007). 'English Only Zone 영어'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Language and Literature, 23*(1), 145-164.

이병천. (2007).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시설의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영어교육연구, 19*(4), 251-278.

이상은. (2006). *English Cafe 활동이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서울.

이재희, 김진석, 황종배, 문승기. (2003). *영어체험프로그램개발 연구*. (2003 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보고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이해련. (2005). EFL 학습자의 의사소통의지와 구두의사소통능력. *영어교육연구, 30*, 94-110.

임자연, 심영미. (2008). EFL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교실환경과 준자연환경의 비교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409-430.

조동완. (1998). 몰입 영어 교육 사례: 포항공대 몰입 영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영어교육, 53*(2), 157-178.

Bailey, K. M. (1983). Competitiveness and anxiety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ooking at and through the diary studies. In H. W. Seliger & M. H. Long (Eds.), *Classroom 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67-102). Rowley, MA: Newbury House.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Dörnyei, Z. (2001).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Harlow, England: Pearson Education.

Ellis, R. (1997).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rdner, R.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 Arnold.

Gardner, R. (1988). The socio-educational model of second language learning: Assumptions, findings, and issues. *Language Learning*, *38*(1), 101-126.

Gardner, R., & Lambert, W.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Gardner, R., & MacIntyre, P. D. (1991). An instrumental motivation in language study: Who says it isn't effectiv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57-72.

Hashimoto, Y. (2002). Motivation and willingness to communicate as predictors of reported L2 use: The Japanese ESL context. *Second Language Studies*, *20*(2), 29-70.

Horwitz, E. K., Horwitz, M. B., & Cope, J. (1986).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 125-132.

Kang, D-H. (2008). An exploratory study of university EFL students' participation in CBI. *English Language Teaching*, *20*(1), 19-40.

Lamb, M. (2007). The impact of school on EFL learning motivation: An Indonesian case study. *TESOL Quarterly*, *41*(4), 757-780.

Lee, M-B.(2005).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integrative and instrumental orientations o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1), 37-55.

Lukmani, Y. M. (1972). Motivation to learn and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Learning, 22*(2), 261-274.

MacDonald, J. R., Clément, R., & MacIntyre, P. D. (2003).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L2 in a bilingual context: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Anglophone and Francophone students*. Retrieved June 20, 200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faculty.capebretonu.ca/pmacintyre/research_pages/publications.htm.

MacIntyre, P. D. (1994). Variables underly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A casual analysi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11*, 135-142.

MacIntyre, P. D., Baker, S. C., Clément, R., & Conrod, S. (2001). Willingness to communicate, social support, and language-learning orientation of immersion studen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3*, 369-388.

MacIntyre, P. D., Baker, S., Clément, R., & Donovan, L.(2002). Sex and age effects 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xiety, perceived competence, and L2 motivation among junior high school French immersion students. *Language Learning*, *52*, 537-564.

MacIntyre, P. D., & Charos, C.(1996). Personality, attitudes, and affect as predictors for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5*, 3-26.

MacIntyre, P. D., & Clément, R. (1996). *A model of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The concept, its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11th World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Jyväskylä, Finland.

MacIntyre, P. D., Clément, R., Dörnyei, Z., & Noels, K.(1998). Conceptualizi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L2: A situational model for L2 confidence and affiliation. *Modern Language Journal*, *82*, 545-562.

McCroskey, J. C. (199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willingness to communicate scale. *Communication Quarterly*, *40*(1), 16-25.

McCroskey, J. C., & Richmond, V. P. (1987).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J. C. McCroskey & J. A. Daly (Eds.),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129-156). Newbury Park, CA: Sage.

McCroskey, J. C., & Richmond, V. P. (1990). Willingness to communicate: A cognitive view. In M. Both-Butterfield (Ed.), *Communication, cognition and anxiety* (pp. 19-44). Newbury Park, CA: Sage.

Scovel, T. (2001). *Learning new languages: A guide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oston, Mass.:Heinle & Heinle.

Woodrow, L. (2006). Anxiety and speak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RELC Journal*, *37*, 308-328.

Yashima, T. (2002).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a second language: The Japanese EFL context. *Modern Language Journal*, *86*(1), 54-66.

Yashima, T., Zenuk-Nishide, L., & Shimizu, K. (2004). The influence of attitudes and affect 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54*(1), 119-152.

부 록
English Café 활용에 관한 설문

1. 학과 _____ 2. 학년 _____ 3. 성별: ① 남 ② 여

4. 영어권 나라에서의 체류 경험
__① 전혀 없다 __② 3개월 이하 __③ 3~6개월
__④ 6개월~1년 __⑤ 1년 이상

5.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영어 수준
__① 상위 수준 __② 중상 수준 __③ 중하 수준 __④ 하위 수준

6.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영어 기술(2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__① 말하기와 듣기 기술 __② 쓰기 기술
__③ 읽기 기술 __④ 다양한 기술을 골고루

7. 학교에서의 영어 수업 이외에 자신의 영어 학습 방법 (2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__① 별도로 영어 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다
__② 학원에서의 수강을 통해 규칙적으로 한다
__③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규칙적으로 한다
__④ 영어 관련 동아리에서의 비교적 규칙적 활동을 통해 한다
__⑤ 혼자서 도서를 가지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한다
__⑥ 기타의 방법을 통해 비교적 규칙적으로 한다( )

8. 다음 12개의 문항들은 영어 학습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_____.

		①	②	③	④	⑤
8-1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8-2	영어권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8-3	영어권 뿐 아니라 타문화권 사람들과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8-4	미래의 나의 진로와 연관하여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8-5	영어권의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이다.					
8-6	사업에 성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7	직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이다.					
8-8	좀 더 유능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8-9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고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8-10	자아실현 및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8-11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이다.					
8-12	졸업 후 대학원이나 유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9. 다음에 주어진 **영어 수업 시간 내에서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어로** 의사소통 할 의지(의사)가 있는 지를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할 생각 없다	어쩌다 할 것 같다	반 정도 하게 될 것 같다	주로 할 것이다	늘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1	최근 당신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기					
9-2	숙제에 관해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9-3	외국인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가 당신에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오면 그와 대화하기					
9-4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9-5	영어로 쓴 글이나 표현이 맞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9-6	연극이나 역할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기하기					
9-7	영어로 모노폴리(블루마블) 등의 게임을 하기					
9-8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9-9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10. 다음에 주어진 **영어 수업 시간 외(예:English Café, 학생 휴게실 등)**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어로** 의사소통 할 의지(의사)가 있는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할 생각 없다	어쩌다 할 것 같다	반 정도 하게 될 것 같다	주로 할 것이다	늘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1	최근 당신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10-2	선생님을 찾아가서 숙제에 관해 물어보기					
10-3	외국인이 당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당신에게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오면 그와 대화하기					
10-4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10-5	영어로 쓴 글이나 표현이 맞는지 원어민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10-6	연극이나 역할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기하기					
10-7	영어로 모노폴리(블루마블) 등의 게임을 하기					
10-8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10-9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기					

11. 교내에 있는 English Café를 이용하십니까?
__① 전혀 이용해본 적 없다
__② 전에는 몇 차례 이용해 봤다가 이제는 안 한다
__③ 월 1-2회 정도 이용한다
__④ 월 3-4회 정도 이용한다
__⑤ 주 1-2회 정도 이용한다
__⑥ 주 3회 이상 이용한다

12. English Café의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__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__② 1~2시간 정도
__③ 2~3시간 정도 __④ 3~4시간 정도
__⑤ 4~5시간 정도 __⑥ 5시간 이상

13. English Café에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__① 보드게임을 주로 이용한다 __② Movie night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__③ 외국인교수님 또는 학우들과 영어로 대화한다
__④ Times, 영자신문을 읽는다
__⑤ English Café의 keeper로서의 역할을 주로 한다
__⑥ 전혀 이용하지 않아서 해당 사항 없다
__⑦ 기타 ( )

14. English Café에서 원어민 교수님 및 학우들과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__① 매우 그렇다 __② 그런 편이다
__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__④ 거의 그렇지 않다
__⑤ Café를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15. English Café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__① 성격상 낯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즐겨 하지 않는다
__② 한국인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__③ 영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 없다
__④ 원어민 교수님/학우들과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__⑤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한다
__⑥ 기타 ( )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김영숙 (Youngsook Kim)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156-763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산 31-3
Tel: (02) 3479-0354
Email: yskim@chongshin.ac.kr

이지연 (Jyi-yeon Yi)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
156-763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산 31-3
Tel: (02) 3479-0355
Email: jyyi@chongshin.ac.kr

Received in October, 2008
Reviewed in November, 200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08